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고창군이 지난 28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심호 교수를 초청하여, 공정하고 부정한 조직분화를 만들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역사 속 인물의 사례와 대화 형식의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군수는 직접 소속 공직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부패 청렴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추석 연휴 대비 환경오염 우심 지역 감시

정읍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 및 육류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폐수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한, 이스콘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207개 배출사업장에 사전 예방 조치를 안내하고 자율 점검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관련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도 병행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크루즈 입항 시계 '초읽기'

부안-청도-인천, 크루즈 항로 개설 청다오 선언문 발표

군은 지난 26~27일 개최된 제12회 중국(청도) 국제 크루즈 포럼에 참석해 부안-청도-인천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 개설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약속하는 청다오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개최사에서 진행된 선언문 서명식에는 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중국 청다오시 국제크루즈항만서비스관리국 등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를 비롯해 블루드림 크루즈, 보하이 크루즈 등 5개 크루즈 선사가 참석했다.

군을 대표해 선언문에 서명을 한 임택명 경제산업국장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5개의 중국 크루즈 선사가 부안-청도-인천을 잇는 크루즈 항로 개설에 합의한 만큼 향후 부안에 크루즈 기항이 더 실무적 성격을 띠면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루즈 기항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7일 개최된 크루즈 리더스 포럼에서는 세계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크루즈 산업 리더들의 토론이 진행



했다. 이날 토론에는 제커린 싱가포르 관광청 크루즈 국장 헨리레이 홍콩정부 관광국 부국장 등 8명의 국제 크루즈 리더들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토론에 참석했다. 리더스 포럼은 '아시아지역 크루즈 산업의 국제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제안과 크루즈 산업을 위한 각국의 노

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의 크루즈 관광 자원과 전북의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홍보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채석강과 적벽강을 비롯한 부안의 아름다운 국제 크루즈 관계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2차 전자입찰 사용 허가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사무실 3개소... 9월 9일까지

부안군은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정비된 상생협력센터(부안읍 동중2길 15, 옛 부안해양경찰서) 3층 사무실 3개소를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9일 오후 6시까지 14일간 제2차 전자입찰을 통해 사용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실시한 제1차 전자입찰 결과 3개 사무소가 낙찰돼 입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무실 중 3개소를 이번 전자입찰을 통해 입주 사회단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찰지역은 전자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계속해 부안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행정안전부 지정정보처리 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lor) 통해 진행되며 낙찰결정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부가가치세 별도) 기준 최고가 입찰한 단체로 결정된다.

이번 전자입찰의 개찰은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 이후 부안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에서 실시해 낙찰자

를 선정한다. 입주기간은 사용 허가로부터 5년이며 사용 허가 이후 3년간 사용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료 체납이 없는 경우 1회 한정해 경신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 상생협력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를 위한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회의 편의시설이 제공돼 단기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부안군 상생협력센터에 부안군 사회단체가 입주해 부안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력센터 전자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입찰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안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580-4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선 8기 정읍시, 공약 이행률 68.8% 순항 중

이학수 시장, 지속 가능한 발전 다짐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약 이행률(완료·완료 후 계속추진 포함)이 68.8%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 77개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31개 사업이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공약 이행률은 5월 대비 13.4% 상승한 68.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77개 공약사업에 대해 꼼꼼히 점검, 부진 사업은 담당부



서와 대면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오는 30일 열릴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부진사업에 대해 보고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피드백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매 분기별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변경 및 폐기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완료된 공약사업들이 단순한 '바침'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나들목공원 물놀이장 성료... 6000여명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은 6월29일 개장한 이후 8월 25일까지 41일간 운영되며 일평균 150여명이 찾았고, 지난해보다 700여명 늘어난 총 6000여 명이 방문했다.

앞서 고창군은 그늘막 추가설치와 각종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고, 운영시

간을 5시부터 5시30분으로 30분 늘렸다.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에는 워터드럼, 워터터널, 조하놀이대 등 다양한 물놀이시설이 완비됐다.

시원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을 마련했고, 그늘막, 남녀탈의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군민들이 지역 내에서 비용 부

담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이 가족과 함께 여름철을 즐겁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올해의 개선편익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27일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섶고을시장에서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질서 의식 함양을 목표로 '전통시장 기초질서 확립 민간 합동지도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읍시, 섶고을시장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정읍시는 27일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섶고을시장에서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질서 의식 함양을 목표로 전통시장 기초질서 확립 민간 합동지도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시 관계부서(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과, 시가동)와 섶고을시장 상인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합동지도는 초산로와 시장 내부 점포를 대상으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고객선 준수와 적치물 이동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화재공제 가입과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해 안내했

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민간 합동지도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 내 고질적인 통행 불편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원한다"며 "이를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